

자아방어 진단 검사 표준화 예비연구*

— 속담을 기초로 한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 영 숙

= Abstract =

A Preliminary Study of a Korean Inventory for Defense Mechanism

Young Sook Park

Department of Ne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The author investigated to select final items of a Korean Defense Inventory for standardization during the period from February 19 to March 10, 1990 at Seoul.

The number of subjects were 528 who were sampled by the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method. The final items of Korean Defense Inventory were selected by the statistics for item difficulty, item standard deviation,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Guttman split-half reliability coeffici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mong the preliminary items 262, 200 items were finally selected for standard test which were composed of 10 items by 20 ego defense mechanism scales.

2) The range of each scales mean was from 2.64 to 3.34 and the individual items deviated from .69 to 1.25.

3) The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adequate for all items except 13 of them and the Guttman split-half reliability coefficients were satisfactory for all scales.

4) Factor analysis extracted four factors of which result was consistent with other research results. Factor 1 was "maladaptive defense mechanism" which were composed of projection, displacement, dissociation, action-out, regression, passive-aggressive behavior, somatization, identification, brag. Factor 2 was "mature defense mechanism", controlling, altruism, distortion, anticipation, rationalization, sublimation, humor. Factor 3 was "excessive inhibited defense mechanism" which were suppression and reaction-formation. Factor 4 was "reality-evasive defense mechanism" which were denial and evasion.

서 론

자아방어 기제는 Freud(1926)¹⁾에 의해 정신구

조내에서의 내적 갈등이나 외부환경 요구와 자아 사이의 외적 갈등으로 야기된 불안을 자아가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책이라고 그 개념이

제시된 이후, 성격형성의 기초로서, 특정 성격의 행동지표로서, 또는 증상형성의 결정요소로서 인식되어 왔다²⁾³⁾⁴⁾⁵⁾⁶⁾.

따라서 자아방어 기제는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부적응 행동 결과인 정신장애의 치료목표 설정과 치료유형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인정되고 있다⁷⁾.

이와같은 개인의 적응, 부적응적 행동을 이해하는 한 수단으로써 자아방어 기제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면담자료에 근거하여 면담자에 의해 평가될 때⁸⁾, 투사적 기록지에 의해 평가될 때⁹⁾, 평가치의 신뢰도는 빈약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객관적으로 방어 기제를 측정하기 위한 Rosenzweig의 그림좌절검사(1950)¹⁰⁾, Blacky의 Defence preference Inquiry(1955)¹¹⁾, Byrne의 repression-sensitization scale(1963)¹²⁾, Semrad(1973)의 자아방어 검사¹³⁾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검사들은 후속 연구에 의해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Vane(1954)은 Rosenzweig 그림 좌절 검사의 방어검사로서의 타당도에 의문을 제기하였고¹⁴⁾, Blum(1956)¹⁵⁾은 Blacky검사 내용 가운데 회피방어 기제만이 적절한 타당도를 갖추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Byrne 검사는 단지 두가지 방어 기제만을 다루고 있음으로써, 그 임상적 가치가 제한되고 있고¹⁶⁾, Semrad의 자아방어 검사는 공격적인 자아 위협 상황만이 제시되고 있음으로써 개인의 보다 자연스런 원래의 방어기제 평가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¹⁷⁾. 이어서 Vaillant(1979)는 병력기록지, 생활사보고서, 면담기록지 평가를 종합하는 방식에 의해 자아방어 기제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이 방법 역시 평가자간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¹⁸⁾. Bond(1973)는 자아방어 기제의 의식적 파생물을 피검사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평가해내는 질문지법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 평가된 자아방어 기제의 위계수준의 타당성이 요인 분석에 의해 입증되었고, 또한 다른 검사와의 교차타당도에 따라 지지되었다¹⁹⁾. Perry등(1986)²⁰⁾은 임상 방어 기제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정신역동적 면담 비디오녹화 평가와의 교차타당도와 추후면담시 심리사회적 기능에의 예견타당도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객관적인 자아방어 기제 평가 도

구를 발전시키려는 과정에서, 자아방어 기제의 위계수준의 타당성, 자아방어 기제검사의 타당도는 어느 정도 제시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에서의 신뢰도는 밝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자아방어 기제검사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서, 전래의 속담에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예비 자아방어검사를 고안하고, 예비문항들의 신뢰도를 측정해보자 하였다. 속담내용을 예비문항의 기초로 사용한 이유는 속담속에는 한국인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전래되어 오고 있으므로²⁵⁾, 한국인 특유의 적응방식이나 자아방어기제가 발견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래의 자아방어 기제의 정의와 전래의 속담에 제시되고 있는 자아방어 기제 내용을 비교하고, 이를 종합하여 예비검사를 제작하고, 표준화검사 제작을 위한 신뢰도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예비검사제작

속담을 기초로 한 한국형 자아방어 검사의 예비문항 선정을 위해서 속담사전²²⁾에 수록된 7,200개 속담 가운데 자아방어 기제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저자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선정한 결과, 800개 속담이 추출되었다. 이 800개 속담을 정신과 전문의 6인에게 제시하고 각 속담내용이 어떤 방어기제에 속하는지를 평정하게 한 결과, 4인 이상이 일치되게 응답한 속담이 587개였다. 이때 평정의 기준으로 제시된 자아방어 기제의 분류는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²³⁾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식에 따랐다. 587개 속담을 방어기제별로 분류해 본 결과,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적 행동, 투사, 전치, 부정, 통제, 억제, 왜곡, 합리화, 해리, 신체화, 행동화, 이타주의, 퇴행, 유우머의 18개 자아방어 기제로 분류되었다²¹⁾.

여기에 예비문항 선정 과정에서 허세행동과 회피방어기제가 추가되어, 20개 자아방어기제로 예비검사가 구성되었다. 허세행동은 표준 방어기제 분류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으나, 속담분석 결과

반동형성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하위내용으로 밝혀졌고²³⁾, 허세행동은 원래의 반동형성과는 차이있는 한국인의 독특한 자아방어 기제라고 판단함으로써 추가하였다. 또한 회피는 속담분석에서 기타 내용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추가하였다.

이와같이 속담분석에서 분류된 18개 자아방어 기제와 허세, 회피방어기제를 포함하여 20개 방어기제를 예비검사의 척도로 삼았다. 예비문항은 각 방어기제에 속하는 속담내용을 정리하여, 원래의 방어기제의 정의나 속담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어기제 내용을 절충하되, 주로 속담에 제시되고 있는 방어기제 내용에 의존하여 20개 방어기제별로 15개 문항 이상, 약 300여개 예비문항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는 원래의 속담 내용을 그대로 예비검사 문항으로 사용하고자 약 100여개 정도의 속담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 예비문항을 일반인 50명, 심리학과 학생 15명, 심리학자 2인에게 의뢰하여, 문항의 이해곤란도를 평정하게 한 결과 속담 내용이 그대로 사용될 경우, 이해곤란도가 높았기 때문에, 속담내용을 일반적인 내용의 문항으로 바꾸었다.

Table 1. Demographic data(N=528)

Variables		Number	(%)
Sex	men	254	(48.1)
	women	274	(51.9)
Age(yrs)	<24	226	(42.8)
	25-34	163	(30.9)
	35-44	71	(13.4)
	>45	68	(12.9)
	Education	> middle school	16
	high school	166	(37.7)
	college student	88	(16.7)
	< college	214	(40.5)
	others	11	(2.1)
Religion	Christian	178	(33.7)
	Catholic	64	(12.1)
	Buddhism	36	(6.8)
	none	211	(40.0)
	others	39	(7.4)

그리고 일반적 내용의 문항 가운데서도 이해곤란도가 높은 문항을 제외시켜서 최종적으로 262개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예비검사를 제작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그렇다, 아니다를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2. 검사 실시

검사는 1990년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서울지역에서 실시되었다. 검사 대상자는 「85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의 기초통계자료에 의하여, 연령, 성별, 교육수준별로 유충무선표집된 서울지역의 일반성인과 학생 528명이었다. 피검사자의 인구학적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검사실시는 피검사자를 개별 방문하여 검사목적 및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검사지를 주고 검사 실시후 회수하도록 하였다.

결 과

1. 문항분석

한국형 자아방어검사 예비문항 262개, 20개 척도에 대한 문항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자아방어기제는 일차적으로 속담내용을 기초로 하고 원래의 자아방어기제 내용을 여기에 절충하여 예비문항을 만든 후, 문항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문항의 평균치, 응답범위의 분포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 문항과 전체 문항 평균치와의 상관도, 즉 문항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교정된 문항적격도, 그리고 한 척도의 반분신뢰도를 나타내는 Guttman 반분신뢰도를 토대로 하여 최종 문항을 각 방어기제별로 10개 문항씩 선정하였다.

허세척도는 예비문항 12개 가운데 앞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최종 문항을 10개 선정하였고, 전체 문항 평균은 2.70이고, 문항적격도는 모두 양호하였고, Guttman 반분신뢰도는 .72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허세의 전체 문항평균은 5점 척도의 중간치 3점보다 낮으므로, 난이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다.

반동형성 척도는 예비문항 12개 가운데 최종 문항 10개가 선정되고, 전체 문항 평균치는 3.16이고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162번, 22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양호하였고 Guttman 반분신뢰도 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item and total scores

Scale No.	Meam (SD)	Internal consistency	Scale No.	Meam (SD)	Internal consistency	Scale No.	Meam (SD)	Internal consistency	Scale No.	Meam (SD)	Internal consistency
Brag Scale			Projection scale			Suppression Scale			Dissociation Scale		
1	2.68(1.06)	.43	5	2.61(1.01)	.32	9	3.34(.98)	.55	13	3.18(1.05)	.45
21	2.42(1.02)	.41	25	2.96(1.08)	.34	29	3.52(.90)	.39	33	3.66(.82)	.27
41	3.30(.93)	.39	45	1.88(.85)	.22	49	3.51(.90)	.57	53	2.53(1.08)	.48
61	3.55(.86)	.42	65	2.76(1.05)	.24	69	3.49(.93)	.37	73	3.37(.97)	.53
81	2.29(1.01)	.43	85	2.36(.86)	.38	89	3.13(.94)	.37	93	3.07(.98)	.53
101	2.09(.88)	.48	105	3.42(.89)	.30	109	3.73(.69)	.37	113	2.86(.99)	.53
121	2.76(1.01)	.39	125	3.29(.92)	.40	129	2.94(.92)	.38	133	2.92(.95)	.59
141	2.61(1.05)	.46	145	2.77(.96)	.20	149	3.19(.85)	.60	153	2.65(1.02)	.52
161	2.84(1.08)	.41	165	2.52(.88)	.34	169	3.24(.85)	.56	173	2.89(.97)	.41
181	2.50(.89)	.25	185	2.63(.92)	.39	189	3.33(.80)	.41	193	3.21(.94)	.41
Reaction-formation scale			Displacement Scale			Displacement Scale			Somatization Scale		
2	3.11(.98)	.32	6	2.82(1.05)	.48	10	3.06(.93)	.32	14	3.11(1.25)	.42
22	3.54(.83)	.19*	26	2.47(.99)	.42	30	2.48(1.04)	.35	34	3.61(.95)	.46
42	3.07(1.08)	.39	46	1.82(.96)	.21	50	2.57(.81)	.35	54	2.45(1.02)	.52
62	2.81(.93)	.24	66	2.71(1.63)	.37	70	2.44(1.01)	.44	74	2.76(1.16)	.47
82	3.09(1.05)	.48	86	2.52(.93)	.20	90	3.06(.85)	.46	94	3.22(.97)	.36
102	3.23(.92)	.39	106	2.70(1.00)	.47	110	2.98(1.02)	.36	114	2.48(.95)	.63
122	3.41(.80)	.32	126	2.41(.93)	.16	130	1.70(.86)	.28	134	2.78(1.09)	.44
142	3.16(.94)	.37	146	3.14(.96)	.45	150	2.95(.90)	.12*	154	2.61(1.14)	.48
162	3.06(.90)	.17*	166	3.35(.89)	.25	170	3.01(.89)	.27	174	3.13(1.02)	.60
182	3.11(1.02)	.30	186	2.64(1.05)	.25	190	2.82(.88)	.36	194	2.13(.88)	.37
Identification scale			Denial Scale			Anticipation Scale			Sublimation Scale		
3	3.90(.69)	.33	7	2.81(1.06)	.20	11	3.41(.90)	.35	15	2.46(1.08)	.27
23	2.71(.95)	.39	27	2.74(1.12)	.27	31	3.50(.85)	.51	35	3.07(1.11)	.38
43	3.17(.87)	.43	47	2.19(.88)	.26	51	3.22(.90)	.53	55	3.11(1.11)	.30
63	3.11(.96)	.44	67	3.25(1.08)	.25	71	3.43(.97)	.35	75	3.27(.99)	.29
83	3.01(.95)	.48	86	2.31(.94)	.26	91	2.84(.98)	.45	95	3.59(.78)	.37
103	3.64(.74)	.27	107	2.00(.83)	.25	111	3.21(.99)	.41	115	2.82(.97)	.32
123	2.48(.96)	.38	127	1.84(.70)	.33	131	3.48(.88)	.36	135	2.96(1.28)	.12*
143	2.90(1.13)	.25	147	2.84(.97)	.23	151	3.06(.95)	.42	155	3.18(.97)	.17*
163	3.59(.81)	.30	167	2.12(.88)	.15*	171	2.55(.91)	.31	175	2.16(.96)	.23
183	3.22(.98)	.27	187	1.86(.76)	.33	191	2.45(.96)	.26	195	2.65(1.00)	.34
Passive-Aggressive scale			Controlling Scale			Rationalization Scale			Acting-out Scale		
4	2.60(.99)	.31	8	3.38(.95)	.39	12	3.19(.95)	.29	16	2.45(1.03)	.40
24	3.55(1.00)	.13*	28	3.00(.94)	.56	32	3.20(.89)	.09	36	3.16(.96)	.40
44	2.59(.98)	.40	48	3.75(.76)	.39	52	3.65(.71)	.31	56	2.38(1.11)	.41
64	2.68(1.03)	.51	68	3.69(.68)	.26	72	2.80(.82)	.36	76	2.70(1.16)	.37
84	2.39(.95)	.47	88	2.83(.92)	.46	92	2.77(.93)	.44	96	2.34(1.07)	.46
104	2.98(.89)	.28	108	2.68(.79)	.29	112	3.72(.85)	.23	116	3.02(1.02)	.45
124	2.26(.83)	.51	128	2.95(.89)	.41	132	2.66(.89)	.33	136	3.37(.94)	.49
144	2.23(1.02)	.22	148	3.27(.80)	.47	152	3.19(.84)	.32	156	3.16(.94)	.39
164	3.09(.95)	.51	168	3.03(1.02)	.13*	172	2.52(.87)	.39	176	1.82(1.00)	.29
184	2.73(.89)	.44	188	2.87(.79)	.44	192	2.98(.93)	.37	196	1.99(.97)	.42

Scale No.	Meam (SD)	Internal consistency	Scale No.	Meam (SD)	Internal consistency
Altruism Scale			Humor Scale		
17	2.84(.77)	.57	19	3.35(.89)	.44
37	3.17(.86)	.64	39	3.23(.97)	.57
57	3.30(.82)	.62	59	3.04(1.00)	.55
77	2.94(.97)	.41	79	3.15(.95)	.48
97	3.00(.86)	.43	99	3.17(.85)	.56
117	3.71(.70)	.50	119	3.23(.94)	.57
137	3.60(.86)	.53	139	3.04(.93)	.47
157	2.76(.79)	.52	159	2.68(.95)	.44
177	3.34(.82)	.50	179	3.71(.76)	.26
197	3.01(.89)	.46	199	3.41(.82)	.55
Regression Scale			evasion		
18	3.42(.89)	.32	20	2.92(1.20)	.23
38	2.38(1.16)	.28	40	2.39(.88)	.38
58	3.17(1.10)	.41	60	3.54(.91)	.25
78	3.50(.92)	.42	80	3.16(1.00)	.40
98	3.42(.97)	.41	100	3.01(.97)	.16
118	2.73(1.07)	.24	120	1.98(.73)	.27
138	2.32(.90)	.22	140	2.72(.98)	.19*
158	3.25(.95)	.45	160	2.88(.97)	.22
178	2.52(.87)	.36	180	2.48(.95)	.20
198	3.53(1.05)	.34	200	3.58(.85)	.19*

* : items less than 2.0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internal consistency)

수는 166으로 높았다.

동일시 척도는 13개 예비문항 가운데 10개 문항이 채택되고, 전체 문항 평균 3.17, 문항적격도는 모두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수는 .71이었다.

수동-공격적 행동척도는 12개 예비문항, 최종 10개 문항, 전체 문항 평균치 2.71,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24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양호하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 .74였다.

투사 척도는 12개 예비문항에서 10개 문항 선정되고, 전체 문항 평균 2.72,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 .64였다.

전치 척도는 15개 예비문항 가운데 10개문항 선정되고, 전체 문항 평균 2.66, 126번을 제외한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66이었다.

부정 척도는 15개 예비문항에서 10개문항을 뽑

고, 문항 평균은 2.40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167번을 제외한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49로 낮은 편이었다.

통계 척도는 13개 예비문항에서 10개문항이 선정되고 문항평균은 3.15, 168번을 제외한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71이었다.

억제 척도는 14개 예비문항, 10개 최종문항, 문항평균 3.34,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모두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78이었다.

왜곡 척도는 14개 예비문항 가운데 10개 문항을 뽑고, 문항평균은 2.71, 150번을 제외한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모두 높았다.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66이었다.

예견 척도는 12개 예비문항 중 10개 문항을 선정하였고, 문항평균은 3.11이며,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모두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72였다.

합리화 척도는 14개 예비문항 가운데 10개 문항이 선정되고, 문항 평균은 3.07이고,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32번을 제외하고는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68이었다.

해리 척도는 12개 예비 문항에서 10개 문항을 선정하고, 문항 평균은 3.03,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모두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77이었다.

신체화 척도는 12개 예비문항, 10개 최종 문항으로 뽑혔고, 문항 평균 2.83,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모두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79였다.

승화 척도는 14개 예비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을 선정하였고, 2.93의 문항 평균 135번, 155번을 제외한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54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행동화 척도는 13개 예비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을 선정하고, 문항 평균은 2.64,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10개 문항 모두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71이었다.

이타주의 척도는 12개 예비 문항에서 10개 문항이 선정되고, 문항 평균은 3.17, 교정된 문항적격도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78이었다.

퇴행 척도는 14개 예비 문항, 10개 최종문항이고, 문항 평균 3.02,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모두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64였다.

유우머 척도는 13개 예비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 선정되고, 문항 평균 3.20, 교정된 문항적격도는 모두 높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77이었다.

회피 척도는 11개 예비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 선정되고, 문항 평균은 2.87이고, 100, 140번, 200번의 교정된 문항적격도가 낮았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44로 다소 낮았다.

2.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속담을 기초로 한 한국형 자아방어 검사 예비 문항에 의한 검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요인분석하였다(표 3). 표 3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principle axis factor analysis 방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후 varimax rotation해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요인부하량이 .55 이상인 9개 척도가 부하되었는데, 투사, 전치, 해리, 행동화, 퇴행, 수동-공격적 행동, 신체화, 동일시, 허세였다. 요인 2는 요인부하량이 .56 이상인 7개 척도가 부하되었고, 통제, 이타주의, 왜곡, 예견, 합리화, 승화, 유우머 기제였다. 요인 3은 .6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가지고 있는 억제와 반동형성이 부하되었다.

Table 3. Factor analysis

Scale	Factor	Factor	Factor	Factor
	1	2	3	4
Projection	.861	-.071	-.108	.091
Displacement	.822	.025	.020	.131
Dissociation	.800	.050	.033	.076
Acting out	.798	.072	-.339	.057
Regression	.784	-.103	-.154	-.007
Passive-aggressive	.782	-.046	.089	.087
Somatization	.735	.084	.045	.155
Identification	.675	.214	.279	-.016
Brag	.557	.059	.252	.041
Controlling	.175	.825	-.119	-.197
Altruism	-.150	.756	.076	.029
Distortion	.130	.728	.213	.188
Anticipation	-.114	.598	.261	.284
Rationalization	.022	.569	.518	-.020
Sublimation	.160	.569	.518	-.020
Humor	.091	.567	.457	-.187
Suppression	-.103	.369	.654	.444
Reaction formation	.521	.123	.604	-.080
Denial	.282	.045	-.044	.711
Evasion	.499	-.300	.233	.498

요인 4는 요인부하량이 .49 이상인 부정, 회피가 부하되었다.

논 의

속담을 기초로 한 자아방어기제 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 검사에서 262개 예비 문항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 200개 문항이 선정되었고, 이들의 난이도, 표준편차는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20개 자아방어기제 척도에 대한 교정된 문항적격도와 반분신뢰도계수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4개 요인 가운데 요인 1은 투사, 전치, 해리, 행동화, 퇴행, 수동-공격적 행동, 신체화, 동일시, 허세 척도가 포함되었다. 이 요인의 공통 특징으로는 이 요인에 포함된 모든 방어기제들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충동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이며¹⁹⁾, 행동화, 퇴행, 투사, 수동-공격적 행동, 신체화, 동일시는 미성숙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²³⁾ ²⁵⁾, 이 요인은 “부적응적인 자아방어기제”라고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Bond¹⁹⁾의 요인분석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 역시 “부적응적 행동방식”이라고 명명한 요인 가운데는 행동화, 퇴행, 수동-공격적 행동, 투사가 포함되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외에 그는 철수와 억제를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전치와 해리는 표준분류 방식²³⁾에 따르면, 신경증적 기제에 속하지만, Bond¹⁹⁾의 연구결과표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부적응적 자아방어 기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치와 해리가 요인 1에 속하는 결과 역시 Bond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 2에는 통제, 이타주의, 왜곡, 예견, 합리화, 승화, 유우머 기제가 포함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 특징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타주의, 예견, 승화, 유우머는 표준분류 방식에서 성숙한 자아방어 기제로 분류되고 있으므로²³⁾ 요인 2에 대해서 “성숙한 자아방어 기제”라는 이름을 잠정적으로 부칠 수 있는 것 같다. 왜곡은 예비문항 내용을 검토해보면, 자아이미지에 대한 과장된

지각과 연관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성숙한 자아 방어 기제 그룹에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llport(1961)²⁶⁾는 성숙한 인격 특성으로 자아감의 확대를, Riesman(1954)은 성숙인격의 조건으로 “고양된 자기의식”을, 그리고 Maslow는 “신비적 경험”을 자아실현 인격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대한 자아 이미지의 왜곡 척도가 이러한 성숙인격에서의 현실적인 자신감이나 낙관적,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 결과, 왜곡 기제가 요인 2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속담에서의 왜곡의 내용은 위에 지적된 자아 방어 기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과소평가된 자아 개념, 가족 중심적인 감정적인 판단, 가족에 대한 지나친 긍정적 판단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본 예비검사에서 왜곡 척도는 속담에서의 왜곡 내용과 원래의 자아방어기제의 정의 내용이 조정되지 못하고 방어기제의 원래의 의미에 충실하게 문항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내용간의 불일치가 있고, 과도한 자아평가 중심으로 예비문항이 이루어진 결과, 현재의 요인 분석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여진다. 통제 척도도 요인 2에 포함되고 있는데, 통제의 예비 문항 내용을 검토해보면, 사건을 앞장서서 주도해 나가고 타인을 간섭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타인을 과도하게 조정하고 간섭함으로써, 개인의 갈등이나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어적인 측면도 있으나, 주도권, 술선수법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예견척도와 마찬가지로, 통제 척도에 의해 자발성이 측정되고 있지 않거나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통제 척도가 요인 2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화 척도는 요인 2에 포함되고 있는데 합리화는 표준 분류에 따르면 신경증적 방어 기제에 속한다. 예비 문항의 합리화 내용을 검토해보면, 개인 행동의 정당화가 주된 내용인데 이러한 정당화 결과, 개인이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믿게 되고 자존심을 지키게 된다는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자존심 보호의 효과로 인하여, 즉 왜곡이나 통제 척도와 같은 이유로 합리화가 요인 2에 속하게 되지 않았나 추론되며, 이러한 추론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요인 2 가운데,

왜곡, 통제, 합리화를 제외한 이타주의, 예견, 승화, 유우머기제는 Bond¹⁹⁾와 Vaillant²⁵⁾의 위계분류 방식에서도 성숙한 방어 기제로 분류되므로,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고 있다.

요인 3에는 억제와 반동형성이 포함되어 있다. 표준 분류²³⁾에 따르면, 억제는 성숙한 수준의 방어기제에, 반동형성은 신경증적 수준의 방어기제에 속한다. Bond¹⁹⁾는 “자기 희생”, “선행 행위”로 반동형성과 유사 이타주의(pseudo altruism)를 요인 분석에서 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억제와 반동형성이 각기 다른 위계수준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그 공통 특징을 발견하기가 어려우나, 본 예비 문항의 억제 내용을 검토해보면, 공통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억제 기제의 원래의 방어기제로서의 의미는 사고나 감정을 일단 보류하고 심사숙고후 판단이나 행동을 한다는 것이며, 예비문항의 내용은 속담의 의미를 받아 들여 “인내한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감정을 억압하고 자기 희생을 한다는 의미가 보다 더 강하게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Bond¹⁹⁾가 반동형성을 “자기 희생적 자아 기제”, “선행적인 자아기제”라고 분류한 점과 공통점이 있다고 사려된다. 이러한 이유로, 억제와 방어기제는 “지나치게 억제적인”, 또는 “자기 희생적인” 방어기제로 명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잠정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추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요인 4는 회피 부정이 포함되고 있다. 이는 다른 연구 결과와 전혀 일치되지 않는 본 연구의 독특한 결과이다. 표준분류²³⁾에 따르면 부정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이며 회피는 기존의 방어 기제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회피를 예비 문항에 포함시킨 이유는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타 속담 가운데 회피 내용이 가장 우세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회피 기제의 새로운 도입의 타당성 여부는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이 두 기제의 공통점으로서, 갈등 장면을 직면하지 않고 현실 도피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본 예비 문항에서는 부정 척도의 내용은 고통스런 현실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었고, 회피 내용은 문제 상황에서의 직면을 피하면서 동시에 수동적으로, 체념적으로 상황에 순응한다

는 의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부정과 회피는 억제 기제와 다른 양상인데, 억제에는 의식적인 결정이나 결단으로서, 인내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조되는 반면, 부정과 회피는 의지적인 행동이라기 보다는 현실도피적인 소망의 결과, 갈등 상황을 직면하지 않겠다는 수동성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요인 4는 “현실 회피적” 자아 방어 기제로 명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요인 분석 결과 추출된 4개 요인은 Bond의 요인 분석²³⁾, Vaillant의 요인 분석²⁵⁾, 그리고 표준 분류 방식과 상당한 정도로 일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분석 결과들에서 주장되고 있는 자아방어기제의 위계론을 본 연구 결과도 지지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본 예비 검사 결과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문항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문항의 적격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나 200개 문항 가운데 13개 문항은 적절하지 못한 수준이었으므로, 재표준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왜곡의 내용에 있어서 속담과 방어 기제 정의 내용이 불일치되고 있으며, 요인 분석 결과 왜곡의 내용이 자아 확대적인 성숙 인격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불일치된 내용간의 조정이 요구된다. 즉 속담의 원래의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왜곡의 병리적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문항이 새롭게 작성되어야 한다.

셋째 본 예비 검사의 20개 척도의 문항 평균치가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우머, 이타주의, 예견, 억제와 같은 바람직한 내용의 척도는 평균치는 높은 반면, 부정, 전치, 허세, 수동-공격적 행동, 투사의 부정적 척도의 평균치가 낮게 나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가 문항내용의 사회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따라 응답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려된다. 즉 바람직한 내용의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문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결과라고 추론된다. 따라서 문항 내용의 사

회바람직성이 두드러지게 차이나지 않도록 문항 수정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바람직성에 따라 응답한 정도를 평가해낼 수 있도록 다면적 인성 검사의 척도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척도가 새로 고안되어야 한다고 사려된다.

이와 같이 예비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교적 만족할만한 본 검사 문항 200개, 20개 자아 방어기제 척도가 결정되었으나 계속적인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지에 의한 방어기제 측정이 실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가설적인 자아방어기제를 평가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¹⁷⁾, 이러한 문제점 검토를 위해 다양한 교차타당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방어 기제는 일종의 성격 특성과 같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동일한 유형의 기제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Vaillant의 주장처럼³⁰⁾, 지속적인 방어양식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보기 위한 검사-재검사 간 신뢰도와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자아방어검사 표준화를 위한 최종 문항을 선정하는 예비 검사를 1990년 2월 19일부터 1990년 3월 10일까지 서울에서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의 피검사자는 비례 층화표집 방법에 의해 표집된 528명이었다. 본 검사의 최종문항은 문항 난이도, 문항의 표준편차, 교정된 문항-전체간 상관도, Guttman 반분신뢰도를 기초로 하여 선정되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문항 262개 가운데, 선정기준에 따라 20개 방어기제별로 10개문항씩 전체 200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2) 각 척도 평균치의 범위는 .26부터 3.34에 이르렀고, 개별문항의 표준편차는 .69에서 1.25 사이였다.

3)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계수는 13개 문항을 제외한 전체 문항이 적절한 수준이었고, Guttman 반분신뢰도계수는 20개 척도 모두 적절한 수준이었다.

4) 요인 분석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투사, 전치, 해리, 행동화, 퇴행, 수동-공격적

행동, 신체화, 동일시, 허세로 구성되었고, 이 요인은 “부적응적 방어기제”라고 명명되었다. 요인 2는 “성숙한 방어기제”로서, 통제, 이타주의, 왜곡, 예견, 합리화, 승화, 유우머가 이에 속하였다. 요인 3은 “지나치게 억제적인 방어기제”로서 억제와 반동형성이 이에 속했다. 요인 4는 “현실회피 방어기제”로서, 부정과 회피가 여기에 속하였다.

References

- 1) Freud S : *Inhibitions, symptoms and anxiet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26 : 20 : 163-164
- 2) Arlow JA : *Symptom formation and character formation*. *Int J Psychoanal* 1964 : 45 : 167-176
- 3) Vaillant GE : *Theoretical hierarchy of adaptive ego mechanisms*. *Arch Gen Psychiatry* 1971 : 24 : 107-118
- 4) Baltt JJ :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Psychoanal Stud Chil* 1974 : 29 : 107-157
- 5) Freud S : *The subtelctics of faulty acti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35 : 22 : 49-62
- 6) Schafer R : *The mechanism of defense*. *Int J Psychoanal* 1968 : 49 : 49-62
- 7) Bond M : *An empirical study of defence style In Empirical study of ego mechanisms %of defense*. Edited by Vaillant GE W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y Press 1986 : 24-25
- 8) Rains GN, Roher EH : *The operational matrix of psychiatric practice. I. Consistency and reliability in interview impression of different psychiatrists*. *Am J Psychiatry* 1955 : 14 : 721-733
- 9) Filer RM : *The clinician's personality amd his case report*. *Am Psychologist* 1952 : 7 : 336
- 10) Rosezweig S : *Revised norms for the adult form of the Rosenzweig P-F study*. *J Personal* 1950 : 18 : 344-346
- 11) Blcaky SB : *Defence preference inquiry*. In Blum GS : *Defence preference in four countries*. *J Proj Tech* 1956 : 20-33-41
- 12) Byrne D, Barry J, Nelson D : *The revised repression-sensitization scale and its relationship to measure of self-description psychological reports*. 1963 : 13 : 323-334
- 13) Semrad EV, Grinspoon L, Fienberg SE : *Development of a ego profile scale*. *Arch J Psychiatry* 1974 : 28 : 70-77
- 14) Vane JR : *Implications of the performance of delinquent girls on the Rorenzweig P-F study*. *J Consul Psychol* 1954 : 18 : 414
- 15) Blum GS : *Defense preference in four countries*. *J Proj Tech* 1956 : 20 : 33-41
- 16) Gleser GC, Ihilevich D : *An objective Instrument for measuring defense mechanisms*. *J Consul Glin Psychol* 1969 : 33(1) : 51-60
- 17) Blacha MD, Raymond EF : *A content validity study of the defence mechanism Inventory*. *J Persoal Assess* 1977 : 41(4) : 402-404
- 18) Vaillant GE :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Arch Jen Psychitry* 1976 : 33 : 535-545
- 19) Bond M, Gardner ST, Christian J, Sigal JJ : *Empirical study of self-rated defense styles*. *Arch Gen Psychiatry* 1983 : 40 : 333-338
- 20) Vaillant GE, Vaillant CO : *A cross-validation of two empirical studies of defenses*. In *Empirical studies of ego mechanisms of defence*. Edited by Vaillant G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y Press : 1986 : 73-88
- 21) 송재선 : *우리말 속담 큰 사전*. 서울 서문당 : 1983 : 375-376
- 22) Kaplan HI, Sadock BJ :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IV*. Baltimore Williams & Willkins 1989 : 375-376
- 23) 이근후 · 박영숙 : *전래의 속담에 나타난 과거 한국인의 자아방어기제*. *신경정신의학* 1990 : 29(3) : 721-732
- 24) Vaillant GE, Bond M, Vaillant CO : *An empirically validated hierachy of defense mechanisms*. *Arch Gen Psychiatry* 1986 : 43 : 786-794
- 25) Allport GW :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ston 1961 : 275-307

- 26) Riesman D, Glazer D, Denney R : *The lonely crowd : A study of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 New York Doubleday 1954 : 35 :
- 27) Maslow AH :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aer and Row 1954 : 200
- 28) Duncan CB : *A reputation test of personality integ-*
- rarion. J Personal Soc Psychol 1966 : 3(5) : 516-526*
- 29) Vaillant GE, Drake RE : *Maturity of ego defended in relation to DSM-III Axes II personality disorder.* Arch Gen Psychiatry 1985 : 42 : 597-601